

# The Books

인터넷으로 하나가 되는 세계를 대화체로 담담하게 풀어나가 「인터넷이 무엇인가」를 알기 쉽게 표현하여 독자들에게 미지의 통신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 나타난 3사람의 대화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7일간의 여행에서 명실상부한 세계화를 보고 정보에의 욕망과 더불어 네트워크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에서 인터넷이 인간의 의식까지도 변화시키는 정보혁명의 세계에 압도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 케네디 우주센터 등을 구경한다.

셋째날은 문화적 공간으로 예술의 세계에 인도되어 미술관을 순례하며 그림을 감상하고 네트워크를 이용한 문화 등 통신을 이용한 예술의 세계에 흠뻑 빠지게 한다.

넷째날은 경제 중심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나타나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현상으로 인도하여 가상기업, 디지털마케팅 등 인터넷에서만 가능한 다양한 비즈니스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에게 조금은 부정적으로 비치는 것이 금요일의 반문화적 세계이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라이브음악회, 온라인 영화 등에 초대받아 안방에서 즐기는 인터넷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역자가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이 책은 인터넷을 이용한 일주일간의 세계여행에서 글로벌 네트워크에 의한 사회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인터넷에의 친화를 유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소개한 책들 대부분이 접속을 위한 도구로서 기술적인 부분에 치우쳤다면 이번 「인터넷 7일간의 여행」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인터넷이 무엇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등을 쉽게 그리고 불가사의하게만 느껴지는 인터넷의 세계가 바로 눈앞에 와있음을 보여주는 책이다.

## 「인터넷」 7일간의 여행

### Internet Tour of 7 Days

그동안 전자 통신망이 미디어혁명을 유발시켰다면 이제 가상 사회를 실현시키는 인터넷은 정보혁명을 주도하고 있다고 저자는 7일째의 독백에서 말하고 있다. 실제적인 인터넷여행은 월요일에 출발하여 토요일에 끝나며 일요일에는 인터넷의 모든것을 종합하고 처해있는 현실을 되돌아보고 있다.

요일별로 나누어 총7부로 구성된 이 책은 첫째날 여행을 시작하면서 인터넷의 역사를 비롯 성장사를 개괄하고, 둘째날부터 본격적인 여행을 떠난다. 자연과학의 세계를 나타낸 화요일에는 흑성을 여행하고 NASA에서 공개정보를 찾으며 MIT연구



다케무라 미쓰히로, 이토 조이치 共著  
 황 한웅 譯, 매일경제신문사  
 6,500원